

대동그룹, 제주 테마파크 ‘승부수’ 스마트팜·푸드테크 전초기지 구축

지난해 제주 애월 22만평 부지에 대형 키즈파크·식물정원 등 조성 1차 오픈 후 54만명 관광객들 방문 195실 호텔·70실 콘도 내년 착공 임예완 경영총괄 “푸드테크 거점 도약”

농기계 제조업이 모태인 대동그룹이 제주에서 미래 농업과 관광을 접목한 대규모 테마파크 개발을 통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대형 식물정원, 키즈 파크, 카페 등을 열어 관광객들을 흡수하고 있는 가운데 호텔, 콘도 등 복합상업시설도 내년에 본격 착공한다. 스마트팜을 활용한 푸드테크 사업 확장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도 한다. 이를 통해 연간 80만명이 찾는 ‘제주 1등 관광지’를 목표로 하는 계획도 세웠다.

16일 대동그룹에 따르면 그룹사 제주대동이 개발하고 있는 애그테크밸리는 제주 애월 봉성리 일대 약 73만9000㎡(약 22만평) 부지에 자리잡고 있다. 제주의 대표적인 새별오름이 바로 옆에 있다.

대동은 지난 2013년 당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보유하고 있던 땅을 개발하는 사업에 공모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후 자본금 500억원의 100% 자회사인 특수목적법인 제주대동을 설립하고 일명 ‘Project ECO’ 사업을 추진해왔다. 대동제주는 1단계 사업으로 지난해 5월 제주당 카페, 아르떼 키즈파크를 개장했다.

아르떼 키즈 파크는 미디어 전시관



제주대동이 제주 애월에서 추진하고 있는 테마파크 조감도.

‘아르떼뮤지엄’을 운영하고 있는 디스트릭트와 공동 투자해 국내 최초로 개관한 미디어 기반 실내 키즈파크 시설이다. 8만5000㎡(약 2만6000평) 공간에 농업을 테마로 한 식물정원 ‘그레이트필드’도 열어 발길을 유도하고 있다. 대동 관계자는 “아르떼 키즈파크에 만 지난해 21만명이 방문했고, 식물정원에는 개장 이후 33만명이 찾는 등 총 54만명의 관광객들이 오면서 제주의 새로운 명소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대동이 만들고 있는 ‘그린스케이프 관광단지’는 퍼블릭 존, 프라이빗 존, 스마트 존으로 나뉜다. 올해엔 ▲제주당 품질·서비스 수준 제고 ▲콜라보 팝업스토어 발굴 ▲5월 가정의달 이벤트 등을 통한 야외공간 명소화 ▲제주도내 1등 키즈파크 공고화 ▲렌터카, 주변 관광지 상호 할인 등 제휴 마케팅 등을 적극 추진한다.

프라이빗 존 개발도 본격화한다. 여

기에는 조선히otel리조트와 위탁경영 계약을 맺고 추진하는 195실 규모의 호텔, 70실 규모의 콘도, 회원제 스파 등의 시설이 들어갈 예정이다. 올해 설계, 건축허가 등을 거쳐 내년에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제주대동 임예완 경영총괄은 “대동이 개발한 기능성 특화 작물을 대규모로 연구하는 스마트팜과 관련 시설도 함께 개발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지역 기반 사업을 통해 제주도와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제주대동을 대동의 미래사업인 그린바이오, 푸드테크의 전초기지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1947년 경남 진주에서 대동공업으로 태동한 대동그룹은 대동기어, 대동금속, 대동모빌리티, 대동로보틱스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하며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1조원 매출을 넘어서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송병준 “벤처 생태계 판 바꿀 혁신정책 절실”

벤처기업협회장에 송병준 의장 선임 창업 감소·적자 지속 생태계 혁신 시급 AI·글로벌 전환 통해 강력 개혁 추진

벤처기업협회가 지난달 28일 제12대 회장에 1976년생의 젊은 리더인 컴퓨터 송병준 의장(사진)을 선임한 가운데, 위기의 벤처산업 생태계에 미칠 파급력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 모바일 게임 1세대이자 2000년대 초부터 게임 산업 성장을 이끌어온 ‘젊은 벤처 기업인’이 이끄는 벤처협회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맞을 지 업계가 거는 기대가 크다. 송의장의 도전·혁신 정신이 벤처업계 위기 극복에 중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만 남았다.

◆“현 국가 위기 돌파 위한 강력한 개혁 필요”

송 회장은 취임사에서 현재 벤처산업이 처한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1순위 아젠다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혁신적 벤처생태계 조성, ▲창업 붐 확산 및 글로벌화, ▲AI 산업 육성 및 전환 주도, ▲혁신산업 분야 대표단



체의 외연 확장 등을 주요 추진 정책으로 제시했다.

송 회장은 “벤처생태계에선 4년 연속 기술 기반 창업기업 수가 감소하고 있다”며 “2023년 말 전체 벤처기업의 영업이익은 1998년 조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며 “위기 돌파를 위한 강력한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벤처 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도 줄어들고 있다. 벤처업계에 그 어느 때보다 반등을 위한 성공의 노하우가 절실한 상황에서 송 회장이 그 어려움을 타개하고 새 길을 여는데 이바지할 책임자라고 평가받고 있다.

◆컴투스, 미개척지 도전 벤처 정신 산출 송 회장은 2000년 게임 개발 및 서비스업체 컴투스홀딩스(전 게임빌)를 설립하며 벤처 기업인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한국 모바일 게임 1세대로 현재까지 게임 산업을 이끌어오고 있다. 송 회장은 컴투스홀딩스 설립 당시 한국 게임 산업에서 다소 생소한 모바일에 과감히 도전했다. 국내에서는 PC 온라인

기반의 게임이 주를 이루던 2000년대 초, 새로운 분야인 퍼즐 게임 개발에 매진하며 한국 모바일 게임 시장의 토대를 일구고 성장시켰다. 산업 변화와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고 미개척지에 과감하게 도전한 벤처 정신의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사업 초창기부터 글로벌 진출에 속력을 낸 결과 지난해 게임 사업 부문 전체 매출의 70%는 해외에서 발생했다.

특히, 글로벌에서 대 성공을 맞본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는 2017년 한국 모바일 게임 최초로 누적 매출 1조 원을 달성하기도 했다.

모바일 야구 게임도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NPB 공식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한국 게임업계에는 미개척지인 일본 야구 게임에도 진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에 나선다.

송 회장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생태계 판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정책이라는 우산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벤처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해치백 명가’… 新골프 앞세워 국내 반격

폭스바겐코리아

올해 상반기 신차 4종 추가 출시 골프·ID.5 등 상반기 라인업 총공세

‘해치백 명가’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국내 시장에서의 명성 회복에 나선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14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8.5세대 골프 출시행사를 열고 가솔린, 디젤, 전기차 등 올해 상반기에만 총 4종의 신차를 추가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틸 셰어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사장은 “국내 소비자를 위한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하겠다”며 “골프 TDI 모델을 시작으로 상반기에 순수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ID.5’와 준대형 SUV ‘아틀라스’, 고성능 모델 ‘골프 GTI’까지 신차 3종을 추가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연기관 3종과 전기 1종을 선보이며 라인업을 다양화하겠다는 의지다. ID.5는 2025년형 신모델로 국내 고객에 선보일 계획이다.

첫 시작은 골프다. 골프는 국내 법인을 설립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5만



틸 셰어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사장이 14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8.5세대 골프를 소개하고 있다.

4644대가 판매되며 수입 해치백 중 처음으로 5만대를 돌파했다. 이번 신형 골프는 2.0L TDI 엔진과 7단 DSG 변속기의 조합으로 150마력(3000~4200rpm)의 최고출력을 낸다. 특히 일상 주행 영역인 1600~2750rpm에서 36.7kg·m의 강력한 최대토크를 발휘한다. 엔진에는 두 개의 질소 산화물 저감장치(SCR) 촉매 변환기를 적용해 이전 세대보다 배출량을 약 80%까지 줄였다. 공인 복합연비는 17.3km/L(도심 15.2km/L, 고속 20.8km/L)로 동급 컴팩트 세그먼트 모델 중 최고 수준이다.

/양성운 기자 ysw@

연비·공간·안전 다 갖춘 패밀리 SUV ‘대세’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

출시 반년 만에 판매 1만대 돌파

포근한 봄을 맞아 가족 단위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자동차 시장에도 공간성과 안전성을 갖춘 패밀리 SUV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르노코리아의 야심작 ‘그랑 콜레오스’는 출시된지 반년 쯤 되었지만 운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이어지면서 ‘대세 패밀리카’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랑 콜레오스는 르노코리아의 역대 신차 중 가장 빠르게 누적 판매 1만대를 돌파했다. 또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AWAK)와 한국자동차기자협회(KAJA) 등에서 ‘2025 올해의 SUV’로 선정되며 안전성과 기술력 등을 입증하며 대세모델로 자리매김했다.

그랑 콜레오스는 길이 4780mm, 폭 1880mm, 높이 1680mm의 큰 차체와 동급 차량 중 가장 긴 휠 베이스(2820mm)로 동급 최고 수준의 실내 공간을 확보했

다. 2열 시트를 접으면 최대 2034L의 트렁크 공간을 제공한다. 또 첨단 NVH(Noise, Vibration, Harshness) 저감 기술을 적용하고, 차량 전반에 흡차음재를 활용해 고급 세단 못지 않은 정숙한 실내 공간을 구현했다.

‘대세 패밀리카’답게 탄탄한 기본기도 갖추고 있다. 그랑 콜레오스 E-Tech 하이브리드는 동급 최고 수준인 245마력의 시스템 출력과 15.7km/L의 공인 복합연비로 뛰어난 주행 성능을 자랑한다.

일반 내연기관인 2.0 가솔린 터보는 최고 출력 211마력을 뽑아내고 최대 토크 33.2kg·m/2000~4500rpm에서 발휘할 줄 아는 SUV다.

패밀리카 선택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안전성도 놓치지 않았다.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검증된 CMA 플랫폼을 기반으로 초고강도 ‘핫 프레스 포밍(HPF)’ 부품을 동급 최대인 18% 비율로 적용했다.

/양성운 기자

한진 “마라톤과 함께, 물류도 완주한 동행”

2025 서울마라톤 공식 물류 수행

한진은 국내 최대 규모 마라톤 대회의 행사 물류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16일 밝혔다. 회사는 이날 열린 서울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의 의류와 장비 등 개인 물품을 결승점인 잠실종합운동장까지 운송했다.

마라톤 대회 물류는 수만명의 참가자가 출발점에서 맡긴 개인의 의류와 각종 물품을 특정시간 내에 결승점에서 돌려줘야 하는 특성상 정확성과 신뢰도가 필수다.

한진은 이번 행사를 위해 예비차량 5대를 포함 1톤 택배차량 100대를 투입했으며 이상무를 사전점검했다. 또한

원활한 운행을 위해 이동경로를 사전답사하고 행사 당일에는 새벽 5시부터 택배기사들과 운영 담당자들이 직접해 출발지인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했다.

이외에도 수만명의 참가자들에게 지급되는 번호표, 티셔츠 등 개별 대회 물품의 사전 택배 배송도 함께 수행했다.

한진 관계자는 “치밀한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물류수행에 총력을 다했으며, 참가한 택배기사와 지원인력들도 국내 최대 마라톤 대회의 성료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스포츠 외에도 전시, 이벤트 등 각종 국제행사 물류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인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